

다산포럼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호서대 교수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해 한반도의 주요 강 곳곳을 막아 생태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를 가중시킨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 정보 공개를 통해 당시 MB정부가 4대강 반대자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가에 의한 불법적인 국민 탄압 행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시 '한강은 흐른다' 음반을 내고 일간지에 수십 편의 반대 칼럼을 기고하면서 대운하 반대 운동에 나섰던 나는 매우 심한 사찰과 탄압으로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이제 민족혼을 담은 국민 영가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앞으로 파시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런 끔찍한 사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다.

MB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녹색성장'이란 구호를 외치면서 이와는 정반대로 한반도에서 녹색을 지워 버리는 정책을(green washing)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또한 대운하 반대 운동을 해 온 환경단체들의 정부 지원을 끊으며 감사에 나섰다. 그리고 혐의가 없으면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책임자 탄압을 자행해 현장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보를 막으면 물이

4대강 반대자 사찰과 민족 영가 '한강은 흐른다'

범취 수질이 악화되는데도 물이 불어나 수질이 깨끗해진다든 억지 주장을 폈다. 운하로 배가 다니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물을 정화 시킨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홍보로 국민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렸을 적 한강 하류인 행주에는 곳곳에 모래섬이 있었다. 강가는 대부분 모래사장이었다. '지렁이 낚시'만 던지면 1급수에 사는 모래무지가 줄줄이 잡혔다. 준비해 간 냄비에 강물을 그대로 떠서 국수와 고추장을 풀어 어죽인 '털레기'를 해 먹었다. 그러나 1989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88올림픽 당시 안보를 핑계로 현재 일산신도시 초입에 신흥수당사를 만들면서 강물이 막혀 3급수로 전락했다. 물길에 바뀌자 모래섬인 방말섬은 장마로 사라졌다. 행주 명물이었던 웅어와 황복은 보가 물길을 막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했다.

2008년 3월 25일. 2470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대운하 반대선언 시 대표 100인으로 참여해 '한강은 흐른다-오세영 시' 음반을 발표하면서 오프닝 송으로 불렀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교수들이 모여 시작된 지식인들의 연이은 선언으로 결국 대운하 포기를 발표했던 MB는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은밀하게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운하의 기준면 6미터 깊이를 파라는 MB 지시에 반대했던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죄다 해고되었다. 대신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비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흉내만 내고 통과시켰다.

또한 처음엔 4대강 사업의 강바닥 깊이도 2미터로 낮게 발표했는데 점점 올리더니 결국엔 대운하 원안대로 6미터로 높여 전강석화처럼 물어붙였다. 그 결과 이전 전국의 큰 강들이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10배 가까이 많은 물을 채워 둔 정지된 호수가 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여름이 되면 '녹차라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녹차가 퍼지고,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을 내뿜으며 악취가 진동했다. 강과 바다를 오르내리며 살던 회유성 물고기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봉어나 메기 등 정지된 흙탕물에서만 사는 어종으로 바뀌면서, 바닥엔 썩은 물에서나 보이는 끈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MB정부는 유신독재 시절의 구금이나 끔찍한 고문만 빼고는 마구잡이 사찰을 자행한 전형적인 파시스트 정부였다. 인터넷에서는 관변단체들이 뿌린 것으로 보이는 '대운하 반대 교수 블랙리스트'가 떠돌아다녔고, 조직적으로 악용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결국 연구비가 죄다 끊기고 대학원생도 못 받아 연구실 문을 닫아야 했다. 게다가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에서 수년 동안이나 매일 방송해 왔던 '건강-환경 칼럼'과 모든 시군에서의 공공 특강도 다 중단되고 말았다. 이렇게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 식물인간 신세가 되자 난 우울증에 빠지면서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고 일부 강의 보가 열리면서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BOD가 감소하고 물고기가 올라오는 등 생태계가 되살아난다는 반기운 소식이 들린다.

한반도의 강물은 아직도 대부분 또 때문에 흐르지 못하지만 반만 년을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온 한국인의 모습과 민족혼을 오롯이 담은 오세영 시인의 시 '한강은 흐른다'로 만든 노래는 이제 중학교 음악교과서와 한국 가곡집에도 실렸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신년 음악회에서 400명의 K코러스 합창단에 의해 '아리랑'과 함께 연주되는 등 한민족의 영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기고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도시철도, 사람 내음 나는 AI 시대를 달린다

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들이 광주에 둠지를 틀고 있다. 바야흐로, AI 중심 도시 광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가 그 변화의 한 가운데서 달리고 있다. 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선로 및 시설물 점검, 관계 원격 컨트롤 시스템 운영,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공기질 관리,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대응 안전 관리까지 운영 전반에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수송 수요를 예측하고 교통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시민 편의와 수익 향상에 적용하는 등 시민 행복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뛰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광주지하철은 시민과 AI를 연결하는 미래지향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조선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금남로 4가역에 최첨단 인공지능과 예방 남도의 문화예술이 접목되는 '문화예술 체험관'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무렵이면, 디지털 캐리커처, 가상현실(VR) 체험 등 흥미진진한 인공지능 체험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곳에 AI 스마트팜도 유지될 계획이다. 기존의 상식과 틀을 깨는 새로운 농업과학의 혁명이 바로 광주

도시철도 역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AI 스마트팜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팍카페, 어린이 체형장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길 예정이다. 광주도시철도는 이제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인공지능 체험의 핫플레이스로 빛나게 될 것이다.

광주도시철도의 이 모든 변화는 '시민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 순간 막연하게 생각하던 'AI'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좋, 그리하여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연결 고리가 되겠다는 각오다. AI산업은 의향-예향-미향 광주의 새로운 '광주다움'을 제시할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 어렵지만 가치있는 일.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봄의 초입에 섰다. 150만 광주 시민 모두, 마음껏 봄을 꿈꿔 보자. 오늘보다 더 따사로운 앞날을 그려 보자. 나의 미래와 이웃의 행복, 공동체의 풍요를 위해 봄빛 스며든 씨앗을 소중하게 키워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동감 넘치는 광주가 다가온다. '사람' 내음 가득한, 따뜻한 심장이 뛰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다. 광주도시철도의 푸르른 질주와 그 길에 함께하겠다.

청춘 특특



김다인
취업준비생

불신의 시대

자'에서 "코로나 끝나면 한번 보자"라고 길어진 인사말이 익숙하다. 코로나 이후 세 차례의 명절을 보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가족과 만나는 것마저 자제해야 했다. 나를 의심하고 상대방을 조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바이러스가 된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쩌면 기정사실화해야 했다. '씻지 않은 손'과 '가리지 않은 입'은 잠재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불신은 마스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극이다. 불신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다음에"로 변했다.

"다음에"가 가져온 나비효과를 쳤다. 얼마 전 논문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 오랜만에 수업이 끝나면 매일 같이 동기들과 걸었던 학교 앞 골목에 들렀다. 자주 갔던 가게들이 어느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온라인 강의로 학생들이 줄자, 대학가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단다. 그로 인해 임대 스티커를 붙인 텅 빈 가게만 남게 됐다. 문득 빈 가게 유리창에 비친 필자의 모습이 보였다. 마스크를 낀 채 친구와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피부로 와 닿는 순간이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 대학가를 비롯해 식당, 유흥업소, 헬스장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던 가게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나라에서는 어느덧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게 되면

서 공간이 바닥난 상태이고 20~30대 청년 취업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다. '절어서 관망했지'. 서로에 대한 우려가 주는 안심은 순간에 불과하다. 불신은 서로 간의 정(情)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불신(不信任)'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불신은 부정적 단어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워드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무중상 감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내앞에 마주한 타인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언택트와 비대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만남을 줄이고 다음을 기약하며,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백 번의 불행보다 빠르고 확실하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봤던 공익 광고가 기억에 남는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막았습니다"라는 나레이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에 대한 의심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은 확산을 멈추게 했을까.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삶의 활력을 잃고 집에만 있는 하루가 우울하다면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콕'을 하며 오늘 내가 지켜낸 확신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라고.

社說

부진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 보완책 마련을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17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가 이러한 여건을 감안,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1년까지 5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5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돼 있는 종합계획(2018-2023년)을 다시 다듬고 추진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보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게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 의 요구다.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투입돼야 할 국비는 1조 4976억 원. 한때 문화전당 효과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시의 재정지급도를 감안할 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법에 '필요 시 국비 반영률을 상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국비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위상 강화도 절실하다. 특히 조직 개편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장급인 단장의 직급을 최소한 국장급으로 높여야 한다. 이는 부처 간 실질적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기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추진단·유관기관·시민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도시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과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등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 유출·도용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업소에 남기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 집합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입명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자 수기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관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업소에서는 방문자 수기 명부를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도용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누구나 보기 쉽도록 공개된 장

소에 비치하는 등 업주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데 기록하는 수기 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도 저조한 홍보와 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개와 한글 2글자로 이뤄진 고유번호로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젊은 층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소 주인들이 출입명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인증 시설 보급 지원과 개인안심번호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안마에서 민중화를 열망하는 꽃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27일만 해도 군경이 거리로 나온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전국에서 최소 114명이 숨졌다. 지난달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날은 '국군의 날'이었다. 군부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는 한편 공영방송 등을 통해 유혈 진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국군의 날'을 '저항의 날'로 바꿔 부르며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의 총칼에

미안마의 봄

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와 평등, 민주와 인권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된다. 40여 년 전 80년 광주도 그랬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다.

미안마의 국화(國花)는 보리수나무의 일종인 '패덕'(Paduak)이다. 4월에 노란 꽃을 피우며, 꽃이 피면 나무 역시 금빛으로 환하게 빛난다고 한다. 미얀마 국민이 더 늦지 않게 군부의 야만을 몰아내고, 노란 패덕꽃이 피어내는 4월에는 '민중화의 봄'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이 세계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UN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데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